

'현우경' 이야기 (38)

천상에 태어난 용

용은 과일을 주며 팔관세계 책을 원했다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우연히 땅에 떨어진 과일을 발견했다. 과일은 아주 향기롭고 빛깔이 고왔다. 나그네는 난생처음 보는 과일이 신기해 얼른 자신의 보따리에 주워 담았다.

“처음 보는 신기한 과일이니 아껴둬다 시장에 내다팔면 큰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며칠 후, 나그네는 과일을 팔기 위해 시장에 나갔다. 나그네는 과일가게 상인에게 자신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줬다.

“생전 맛보지 못한 진귀한 과일이요. 분명 사람들이 서로 사가려고 할 것이요.”

“아니, 이런 과일은 처음 보오. 이것을 어디서 구했던 말이지요?”

“저기 산 넘어 숲에서 발견했소. 과일을 살것이지요? 말것이지요?”

상인은 과일 맛에 반해 나그네에게 돈을 두둑이 주고 과일을 샀다.

“이 과일을 왕에게 바치면 분명 더 많은 포상금을 줄 것이다.”

상인은 바로 궁으로 향해 나그네에게 산 과일을 왕에게 바쳤다. 왕은 상인이 가져온 과일을 맛보고 말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 먹어 보는구나. 이걸 어디에서 구했느냐?”

“어느 나그네가 우연히 숲을 지나다 발견해서 저에게 팔았습니다.”

“근처 숲에서 나는 과일이라면 왜 지금까지 나에게 이 과일을 올리지 않은 것이냐?”

“그 이유는 소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과일이 어디서 나는지 알았으니, 앞으로 매일 이 과일을 나에게 바치도록 하여라.”

상인은 왕의 명령을 받고 과일을 구하기 위해 나그네가 알려 준 숲으로 향했다. 하지만 숲을 다 뒤져보아도 과일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이 과일은 어디에 있던 말인가.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 내일 이 과일을 왕에게 바치지 못하면 내 목숨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상인은 날이 저물도록 과일을 찾지



삽화·강병호

못했다. 상인은 격정스러운 마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용이 상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타났다.

“자네는 왜 여기서 이렇게 울고 있는가?”

“왕이 저에게 과일을 구해오라고 명령했는데, 제가 찾는 과일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자 용이 상인이 찾는 과일을 한 바구니를 주면서 말했다.

“이 과일을 왕에게 가져다 주거라. 대신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입니까?”

“왕과 나는 과거 매우 친한 친구였다. 왕은 팔관세계를 잘 지키고 익혀 지금 왕이 됐지만, 나는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 용이 되고 말았다. 나는 다음 생에 반드시 천상

을 태어나고 싶다. 그러니 지금 당장 왕에게 가서 팔관세계 책을 가져오너라. 만약 가져오지 못하면 이 나라를 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상인은 용이 준 과일을 들고 왕을 찾았다. 왕은 과일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상인의 어두운 낯빛을 발견하곤 물었다.

“나의 표정이 왜이리 어두운 것이냐?”

상인은 왕에게 자신이 어찌 겪었던 일을 상세히 얘기했다. 왕은 상인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빠졌다.

“지금 나는 팔관세계 책을 갖고 있지 않다. 이를 어쩐단 말인가...?”

고민에 빠진 왕은 결국 신하를 불러 사실을 알렸다.

“지금 이 세상은 불법이 없어져, 팔관세계 책을 구할 수가 없다. 만약 책을 구하지 못하면 용은 분명 이 나라를 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묘책을 내서 책을 구해 오거라. 만약 구해오지 못한다면 너의 목숨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매우 근심에 잠

겨 집으로 돌아갔다. 그때 늙은 아버지가 아들의 걱정스런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왕이 저에게 팔관세계 책을 구해오라 명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 없어져 책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 뒷마당에 큰 바위 하나가 있다. 이상하게 그 곳에 항상 빛이 쬐인다. 그 바위를 보면서 어떤 바위인지 궁금했다. 혹시 모르는 일이나 바위를 깨 보거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위를 깬다. 그러자 바위 안에서 두 권의 경전이 나왔다. 하나는 팔관세계와 나머지 하나는 열두가지 인연법에 관한 내용이었다. 신하는 곧장 왕을 찾아가 책을 바쳤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책을 용에게 바로 전달했다.

용은 책을 받고 매일 같이 수행하고 공부했다. 결국 용은 목숨이 다하자 천상에 태어났고, 훗날 스로타나가 됐다.

왕도 경전을 발견하곤 다시 열심히 수행해 세상에 불법을 널리 알리고 중생들을 교화했다.

구경=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대장경 속 우화 (40)

- 전생의 약속 -

구성·김흥인

Panel 1: 옛날 인도에 '우달나'라는 왕이 있었다. 그의 사랑하는 왕비가 죽음이 다가오자 출가를 허락하였다. 천상에 태어나면 꼭 나를 다시 찾아와야 하오!

Panel 2: 왕비는 출가후 죽어서 천상세계로 갔다. 약속을 지켜야지!

Panel 3: 찾아온 왕비를 보고 왕이 꺼안으려 하자 왕비는 몸을 허공에 띄우며 피하였다. 아직도 애육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너무 보고싶었소! 안아주오!

Panel 4: 육신은 무상한 것으로...! 마치 아침이슬이 해가뜨면 사라지는 것과 같이 덧없는 것인데 어찌 탐하십니까? 젊음도 늙음으로 인해 멀고 눈도 귀도 어두워지고 형상마저 썩어 사라지니...!

Panel 5: 대왕의 육신도 이제 늙었으니 즐길 만한 것은 남아 있지 않고 죽음이 가까워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대왕을 따르는 자는 물론 재물도... 자신의 몸조차도 죽은 후에 따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Panel 6: 대왕께서는 본래 지혜로운 분인데 어찌 출가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출가 하겠소!

Panel 7: 출가하시거든 좋은 스승을 만나셔야 합니다! 잘 가오!

Panel 8: 우달나왕은 바로 출가를 하여 부처님께 설법을 들었다. 큰 용기를 내셨군요!

Panel 9: 그리고 숲으로 들어가 고된 수행을 하였다.

Panel 10: 어느날 걸식한 음식을 먹는데 병사왕이 그 모습을 보았다. 참으로 딱하오! 한때 이 나라의 국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분이 이리 고 있다니...! 쫓쫓

Panel 11: 지금이라도 돌아오신다면 나라의 절반을 통치하게 해드리리다! 어때요?

Panel 12: 나는 출가하기 전에 큰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걸 버렸는데 이제 어찌 다시 작은 것을 취할 마음이 있겠는가!

Panel 13: 병사왕은 우달나왕의 대답에 아무 대꾸도 못하고 돌아갔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 진(眞) 참회문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의 길잡이!  
-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108배와 함께 하면 전생의 악연이 사라져 모든 장애가 없어지게 하는 108 참회문 - 108 진참회문

☎ 031-534-3373

**‘생사 문제’ 해결해 우리의 주인으로 살라!**

**《허공의 주인공》**  
- '한국의 유마' 백봉 거사 선어록  
청봉 전근홍 엮음

461면 | 흑백 | 360쪽 | 10,000원

허공성이 바로 '나'니 부처행 하며 살자! 생활인에게 맞는 '새로운 화두(새말귀)' 공부법

20세기 '한국의 유마'로 추앙받는 백봉 김기추(1908~1985) 거사의 생생한 법문과 언행을 기록한 책. 죽음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절망적이었던 청봉 거사(보림선원 서울선원 원로회 예백실장)가 스승의 설법과 수행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접 듣고 느꼈던 법문 내용을 소개해 제가 수행자들의 발심과 공부를 돕는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내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이트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이오 칼라 지붕 공사** (구. 현대칼라지붕공사)